





## 전의경 구타근절대책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연균\* · 이창한\*\*

### 〈요 약〉

이 연구는 전의경의 부대적응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전의경 부대의 구타근절대책이 스트레스 변인을 통해 부대적응에 이르는지를 구조방정식분석을 사용하여 파악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1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전원에 대한 조사 데이터이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스트레스를 통한 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효과크기를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대의 구타근절대책의 영향력 보다 더 컸다. 즉, 부대의 구타근절대책이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전의경의 부대적응력은 부대의 구타근절대책 보다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이 더 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당국은 전의경이 겪는 스트레스가 부대적응도를 결정할 수 있는 원인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제어 : 전의경, 부대적응, 구타근절대책, 스트레스, 구조방정식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br>II. 이론적 배경<br>III. 연구방법론<br>IV. 연구결과<br>V. 결 론 |
|--|

## I. 서 론

전의경은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교통단속, 방법순찰, 재난재해경비, 유치장 근무, 민원실 근무 등 경찰업무 전반에 있어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967년 9월 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특별경찰기관 집행기관인 전투경찰대가 설치되었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였다. 1982년 12월 31일 창설된 의무경찰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한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경찰청, 2012: 4),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방법, 교통 등 민생치안 지원업무 수행에 중요한 자원이다(김상균, 2011: 266).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업경찰공무원과 더불어 경찰업무 대부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의경의 활동은 경찰활동의 성과와 국민의 체감치안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황우 외 3인, 2007: 189-190). 이들은 경찰조직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하나의 조직원이다. 전의경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경찰활동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전의경이 부대에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다(이창한, 2011: 156-157).

전의경의 부대적응 여부는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5)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전의경이 부대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시위진압 등 격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열악한 내무생활이 주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전의경은 20대 초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초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쳤을 뿐, 새로운 자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어 통제와 명령을 근간으로 하는 부대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업경찰공무원이 엄격한 법집행, 질서유지, 치안서비스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Fielding, 1995: 305-306)에 비추어, 전의경 또한 직업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직에 얼마나 적응하느냐는 조직효과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활용된다(장승수, 2010; 송병호, 2005; 유경화·신원형, 2003). 즉, 전의경이 부대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전의경이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부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경찰조직의 효과성 또한 감소될 것이다.

경찰청(2012)은 군대와 유사한 구조적 문화를 가진 전의경 부대의 생활문화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대 부적응자를 위한 심리상담 치료, 인성·인권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경찰청 보도자료, 2012.1.9.). 그러나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경찰청의 구타근절대책이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전의경은 직업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의 구타가혹행위 근절대책과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구타가혹 근절대책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대적응

먼저 적응이란 개인의 욕구가 개인이 속한 사회에 충족되고,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수용되어 스스로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엄덕희, 2013). 전의경이 속해있는 부대는 계급, 직책, 권위를 바탕으로 한 위계적 집단으로 강제적 규율관계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박동수, 2007). 또한 국제법상 군대로 간주될 수 있고(김상균, 2011) 현역 군인과 유사한 형태로 병영생활을 한다(김상균, 송병호, 2006)는 점에서 군부대의 특성을 가진다(오규철, 2009). 따라서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군조직 적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의경과 비슷한 부대환경을 가진 군대에서 조직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병사가 군조직에서 자신의 기대와 욕구 등이 충족되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장경숙, 2007). 즉 병사들의 군부대 적응은 업무와 환경, 인간관계 등에 대해 만족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한다(이현주, 2012: 20). 따라서 군대에서의 적응은 어디까지나 군대의 관점에서의 적응을 뜻하며, 군대 적응은 병사들이 군생활 속에서의 임무수행 의지, 생활관 생활, 군대 조직 환경, 직무와 직책이라는 4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전의경의 부대 적응이란 전의경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정신적 능력 및 부대 환경에 대한 욕구를 만족 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리자 및 부대원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과 원만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에서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전의경의 부대적응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 폭행사고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전의경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대적응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박익상, 2012; 김상용, 2011; 최혜란, 2009; 윤병권, 2008; 구승신,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의경을 대상으로 폭력 및 가혹행위가 부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전의경이 부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부분 폭행사건을 든다.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의경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부대유형별, 계급별로 가혹행위 및 피해경험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유재두, 2005). 이 연구에서는 부대유형별, 계급별로 가혹행위 및 구타경험과 함께 근무시간, 사적인 제재, 복무만족도, 인권의식, 애로사항 조치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의경의 인권현황을 살펴보는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근무환경들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요인들로 파악할 수 있다.

전의경 부대에서 부대적응도를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박동수(2007)는 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조직적·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찾았다(박동수, 2007). 그는 전의경 부대의 폭력행위 대책이 근본적인 발생원인인 지배적 가치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정책 제시 및 지휘관 문책 등 대응적인 대책에 국한되어 오히려 모범적인 전의경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기 보다는 전의경 제도 전반을 고찰하면서 부대적응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져 왔다. 먼저, 전의경제도 측면서 전의경의 부대적응이 어려운 이유를 특수한 업무특성과 조직으로 평가한 연구가 있다(김상균, 2011). 이러한 특성들은 전의경들이 가혹행위 및 구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전의경제도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한홍수, 2012)에서도 전의경 중 부대 부적응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시하기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대적응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지위요인이 비전문화, 비합리적인 근무시간과 휴무제, 교육훈련의 미비 등이 제시되었다.

전의경은 직업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정승아, 2012). 정승아는 전의경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이 근무지별, 부대별, 담당업무별, 경찰학교 성적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전의경의 부대 적응을 저해하는 스트레스 발생요인을 기간요원들이 반드시 파악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기간요원들은 부대특성이 전의경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욕구를 좌절시키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통해 전의경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대적응도가 낮은 전의경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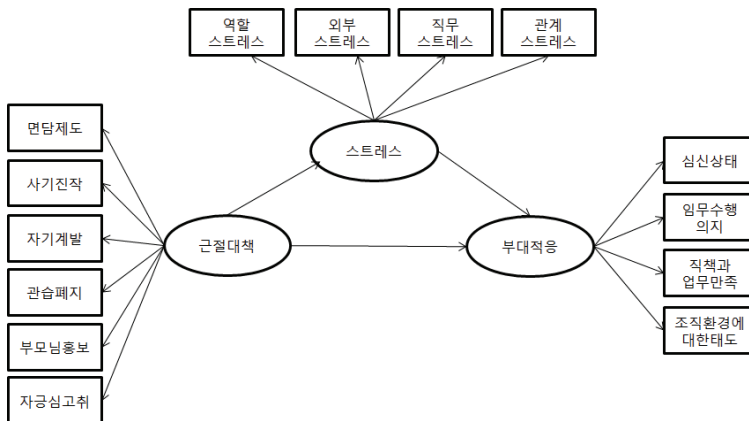
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최응렬·김우준·안영규(2011) 등은 전의경의 자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그들은 전의경이 자살하는 이유로 부대 내 가혹행위 및 구타를 들었다. 즉 전의경이 부대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구타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문제와 지원관의 리더십 부족을 들었다. 또한 정신질환 등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전의경이 부대적응을 잘하는지 및 부대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전의경이 겪는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전의경의 구타근절대책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매개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아래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 부대의 구타근절대책이 부대적응에 직접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부대의 구타근절대책과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매개효과가 있는가?

## 2. 분석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의경 부대의 폭력근절대책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 3월 기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모집단 전수에 대한 조사는 2011년 3월 14일부터 2011년 3월 25일까지 울산지방경찰청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한 설문지를 전의경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의경 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문에 객관적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계급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1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부 회수하였지만,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완성도가 높은 19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3.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 부대적응

종속변수인 부대적응은 입대 후 실제 근무지에서의 생활적응을 뜻한다. 이는 부대에서 부여하는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고 부대의 여러 규범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의미한다. 척도는 Stouffer(1956)가 연구한 군생활 적응 검사를 신태수(1981)가 우리나라 군대 실정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하위척도(심신의 상태, 임무수행의지, 직무만족,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다. ‘심신의 상태(Personal Esprit)’는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으로 측정하며, ‘임무수행의지(Personal Commitment)’는 사명감, 자발성, 자신감, 의무수행, 소속집단 애정으로 측정하며, ‘직무만족(Satisfaction with Status & Job)’은 직책 만족, 능력발휘 인식, 업무 중요성 인식, 업무가치, 직무열정으로 측정하며, ‘조직환경 태도(Attitude toward Military Environment)’는 훈련 정도 및 군기, 기간요원능력 및 일체감, 후생복지, 부대에 대한 인상으로 측정한다. 각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부대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부대적응 변수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3$ 이다.

## 2) 독립변수 : 부대의 폭력근절대책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부대의 폭력근절대책은 2011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립하여 시행한 정책들로 면담제도의 개선, 사진진작 프로그램 제공,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 관동성명 암기 등 관습의 폐지, 부대생활상을 부모님에게 홍보, 부대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대의 폭력근절대책에 대하여 전의경이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 3) 매개변수 : 스트레스

이 연구에서는 전의경이 부대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의경과 비슷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하는 군병사가 군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한국생산성본부(1993)이 개발하고, 구승신(2004)가 우리나라 군부대 특성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부대생활 스트레스 문항은 역할스트레스 5문항, 외부스트레스 5문항, 직무스트레스 5문항, 관계스트레스 5문항 등 총 4개의 하위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스트레스는 부대생활에서의 역할갈등 및 모호성, 외부스트레스는 가족 및 이성, 친구 등 부대 이외의 요인으로 인하여 겪는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부대에서의 직무특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관계스트레스는 부대 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조작화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대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고 있다고 해석된다.

## 4. 자료분석 방법

개선방안의 잠재변인이 스트레스 잠재변인을 매개로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첫째, 종속변인인 조직적응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3가지 잠재변인이 얼마만큼 잘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매개변인인 스트레스를 매개한 각 잠재변인들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

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모형에서 독립변수가 1가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인 청소년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각 경로별 관계와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뿐만 아니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NFI, TLI, CFI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을 의미하며 0.9이상이면 모델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배병렬, 2011: 266). RMSEA는 0.08 이하를 수용도로 가지며 0.10보다 크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연구대상 전의경의 부대 유형을 살펴보면 경찰서 근무자가 29명, 기동대 근무자가 166명으로 기동대 근무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속부대를 보면 경찰서 근무자는 중부경찰서 8명(4.1%), 남부경찰서 6명(3.1%), 동부경찰서 7명(3.6%), 울주경찰서 8명(4.1%)로 각 경찰서별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고, 기동대 근무 인원도 1중대 65명(33.3%), 2중대 59명(30.3%), 3중대 42명(21.5%)로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계급은 일경이 76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경이 22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7명(3.6%)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4년제 대학교 재학의 학력이 150명(76.9%)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형태의 경우에는 양친가정이 172명(88.2%)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의경이 양친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입대연령은 19세가 105명(53.8%)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월수입의 경우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성실하게 응답을 하지 않은 결측값의 비율이 높아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기 힘들다.

〈표 4-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백분율
전 체		195	100.0
부대유형	경찰서	29	14.9
	기동대	166	85.1
소속부대	중부경찰서	8	4.1
	남부경찰서	6	3.1
	동부경찰서	7	3.6
	울주경찰서	8	4.1
	1중대	65	33.3
	2중대	59	30.3
	3중대	42	21.5
계 급	이경	22	11.3
	일경	76	39.0
	상경	73	37.4
	수경	24	12.3
학 력	고졸	7	3.6
	전문대	36	18.5
	4년제	150	76.9
	대학원	2	1.0
부모관계	양친	172	90.1
	편모	13	6.8
	편부	4	2.1
	기타	2	1.1

## 2. 종속변수의 분석결과

<표 1>는 종속변인인 조직적응의 직급별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전의경의 조직적응 중 심신상태가 가장 좋다고 응답한 집단은 이경(평균: 3.94)로 대체적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심신상태가 나빠진다고 응답하였다. 임무수행의지의 경우도 이경(평균: 2.30)이 가장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임무수행의지가 나빠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책과 직무만족의 경우 일경(평균: 3.53)이 가장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일경(평균: 3.65)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집단별 조직적응의 평균의 차이는 조금씩 존재하긴 하나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 1〉 직급별 조직적응 평균

심신상태	평균	F
이경	3.94	F=1.46(n.s./df=194)
일경	3.89	
수경	3.74	
상경	3.60	
임무수행의지	평균	F
이경	2.30	F=0.27(n.s./df=194)
일경	2.20	
수경	2.13	
상경	2.11	
직책과 직무만족	평균	F
이경	3.45	F=1.14(n.s./df=194)
일경	3.53	
수경	3.34	
상경	3.29	
부대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평균	F
이경	3.61	F=2.41(n.s./df=194)
일경	3.65	
수경	3.47	
상경	3.29	

### 3.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잠재변인들을 대표하는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어느 정도 잘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해 보았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조직개선, 조직적응이 잠재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측변인들은 4-5개씩 구성되어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Model	147.59***	74	.911	.928	.071

〈표 3〉 측정변인들의 요인적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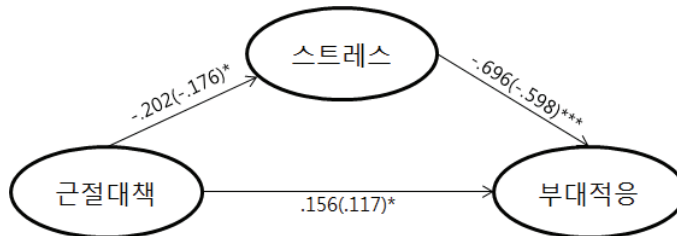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z
면담제도 → 개선효과	1.00	.45	.07	6.08***
사기진작 → 개선효과	.65	.33	.09	3.90***
자기계발 → 개선효과	.72	.47	.08	6.01***
관습폐지 → 개선효과	1.02	.42	.08	5.53***
부모님홍보 → 개선효과	1.62	.60	.07	9.07***
자금심고취 → 개선효과	1.63	.67	.07	10.34***
역할스트레스 → 스트레스	1.00	.88	.02	39.74***
외부스트레스 → 스트레스	.88	.75	.04	21.21***
직무스트레스 → 스트레스	1.14	.89	.02	42.39***
관계스트레스 → 스트레스	.96	.82	.03	30.13***
심신상태 → 조직적응	1.00	.72	.04	17.21***
임무수행의지 → 조직적응	.49	.31	.07	4.35***
직책과업무만족 → 조직적응	1.07	.79	.04	21.59***
조직환경에대한태도 → 조직적응	.98	.82	.03	23.75***

이렇게 설정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모형 적합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chi^2=147.59^{***}$  ( $df=74$ )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p<.001$ 의 신뢰수준 내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량은 사례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 지수이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TLI=.911, CFI=.928, RMSEA=.071를 보여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LI, CFI는 0.9이상이면 모델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2가지 적합도지수 전부 0.9이상으로 우수한 모델적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용기준이 .08이하인 RMSEA의 값이 본 모형은 .071로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정변인들의 요인적 재량은 <표 3>에 잘 나타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 조직개선, 조직적응에 대한 측정변인들 중 14개의 변인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궁심고취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67으로 개선방법을 가장 잘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89)가 스트레스를 가장 잘 측정하고 있으며, 조직환경에대한태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82로 조직적응을 가장 잘 측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구조모형 분석은 스트레스가 독립변인으로, 개선효과가 매개변인으로, 조직적응이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그림 1>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Model	147.59***	74	.911	.928	.071

<그림 3>에서 개선방안의 독립변인은 스트레스 매개변인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의경들의 병영문화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스트레스( $\beta = -.202^*$ )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 = .156$ )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즉, 전의경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면담, 사기진작, 자긍심고취 등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전의경의 조직적응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 $\beta = -.696^{***}$ )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47.59^{***}(df=74)$ , TLI=.911, CFI=.928, RMSEA=.071로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TLI, CFI의 지수가 전부 0.9이상이므로 분석을 위해 적절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RMSEA는 수용기준이 .08이하기 기준인데 본 모델은 .071로 적절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선방안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조직적응을 설명하는 데 좋은 모델로 판명 났다.

## V. 결 론

우리나라 전의경은 군복무 대체요원으로 경찰인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경찰관을 돕고, 교통, 방법, 민원실, 유치장 근무 등과 같은 치안업무 보조 및 시위진압 그리고 대간첩작전에 투입된다. 이와 같이 전의경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시민들의 잦은 접촉으로 경찰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전의경이 소속 부대에 얼마나 잘 적응하며 생활하는지는 치안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의경의 부대적응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전의경 부대의 구타근절대책이 스트레스 변인을 통해 부대적응에 이르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전의경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를 설명한 후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13부가 배포되었으나 조사대상자의 설문거부, 부실기재 등으로 18부가 제외되어 총 19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전의경의 부대 유형을 살펴보면 경찰서 근무자에 비해 기동대 근무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소속부대는 각 경찰서별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고, 기동대 근무인원도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인사화학적 요인으로 계급은 일경이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고 이경이 2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의 학력이 76.9%로 가장 많았고 가정형태의 경우도 양친가정이 88.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입대연령은 19세가 53.8%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의경의 조직적응 중 심신상태가 가장 좋다고 응답한 집단은 이경으로 대체적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심신상태가 나빠진다고 응답하였다. 임무수행의지의 경우도 이경이 가장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임무수행의지가 나빠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책과 직무만족의 경우와 군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일경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집단별 조직적응의 평균의 차이는 조금씩 존재하긴 하나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검토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p < .001$ 의 신뢰수준 내에서 유의미하였고, 다른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역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정변인들의 요인적 재량은 스트레스, 조직개선, 조직적응에 대한 측정변인들 중 14개의 변인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궁심고취는 개선방법을 가장 잘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가장 잘 측정하고 있으며, 조직환경에대한태도는 조직적응을 가장 잘 측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전의경의 부대적응에 구타가혹 근절대책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타근절 개선방안의 독립변인은 스트레스 매개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의경들의 병영문화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전의경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면담, 사기진작, 자긍심고취 등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전의경의 조직적응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47.59^{***}(df=74)$ , TLI=.911, CFI=.928, RMSEA=.071로 나타나 적절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개선방안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조직적응을 설명하는 데 좋은 모델로 판명 났다.

그 동안 전의경은 폭력적인 병영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전의경의 구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폭력적인 병영문화 근절을 위해 폭력행위의 원인을 밝히기도 하였다. 전의경 개개인의 고유한 원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특징 변화, 그리고 부대환경과의 역학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하고 시행하여 왔다. 일례는 2011년 상반기 울산지방경찰청은 전의경 구타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원들 간 존댓말 사용, 벌점제도의 강화, 면담제도의 활성화, 기간요원들을 통한 하급기수 처벌, 부대 내 활동 시 기간요원 배치, 인권교육의 실시, 훈련시간의 감소,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도입, 담당업무별 배치, 계급 구분 없이 동등한 부대생활, 암기사항 등 기존 관습의 폐지,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전의경제도 안내교육, 전의경 특채나 부대 홈페이지 운영 등 전의경 자긍심 고취, 집회시위는 경찰중대가 맡고 전의경부대는 교통 및 방법 지원에 한정, 훌륭한 기간요원의 배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구타근절 대책들은 전의경의 부대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의경의 구타근절대책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매개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지를 파악하는 데 맞추어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과 다른 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이 처한 부대환경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경부터 수경까지의 부대에서 생활하는 종단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구승신. (2004), “신세대병사의 군생활적응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전의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권인혁. (2004), “신세대장병의 의식성향과 군조직 스트레스적응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 경찰청. (2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 김상균. (2011), “전의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경찰학논총」 6(1): 265-283.
- 김상균·송병호(2006), “경찰공무원의 부패실태와 통제방안”, 「한국 부패학회보」 11(2)75-96
- 김상용. (2011), “언어폭력이 장병부대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 대학원.
- 박동수. (2007), “전의경폭행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익상. (2012), “신세대병사의 군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명대학교 대학원.
- 박일. (2012), “정신전력과 긍정적 정신건강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손희락. (2001), “신세대장병의 스트레스가 부대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학교관리과학 대학원.
- 송병호. (2005), “전의경의 인권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7-241.
- 신태수. (1981), “군대조직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대생활에의 적응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엄덕희. (2009),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규철. (2009), “전·의경 의문사의 발생원인 분석 : 심리·정신의학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5 (2): 123-148
- 유경화 · 신원형. (2003), “경찰조직에 서리더십유형과 객관적조직성과 간의 관계: 집단효능감의 매개역할”, 「한국행정학보」 37(3) : 379-397.
- 유연웅. (2012), “병사들의 군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5(2):

5-30.

- 유재두. (2005), “한국 전의경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유혜경. (2013), “병사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윤병권. (2008), “병영스트레스와 군복무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 이윤희. (1963), “군 생활에의 적응”,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창한. (2008), “보호관찰공무원의 폭력피해경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173-200.
- 이현주. (2012), “군 장병의 자이탄력성과 부대적응도의 관계 : 정서자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4),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경수. (2007), “신세대병사의 자이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장승수. (2010). “경찰지구대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3(2): 109-134.
- 전수홍. (2012), “부적응병사들의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정승아. (2012), “전의경이 겪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2(1): 175-196.
- 박영주·정원철. (2006), “병사의 군부대적응요인에 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73-93.
- 최응렬·김우준·안영규. (2011), “전의경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8(1): 69-88.
- 최혜란. (2009),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한홍수. (2012), “전의경제도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2. 국외문헌

- Fielding, N. G. (1995), *Community Polic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ouffer, Samuel A. (1949), *The American Soldier: Adjustment during Army Life*, Oxford, Engl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 **Influence of Preventive Measurements on Military Life Adjustment Mediated by Stress**

Jung, Yeun-Kyoun  
Lee, Chang-Han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grasp using a structure equation analysis if an auxiliary police officer unit's measure of getting rid of assault gets to their adaptation to the unit through stress factor to reveal the cause of an auxiliary police officer unit's adaptation to unit. The data used for the research is survey data of all auxiliary police officer belonging to Ul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2011.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ediated effect through stress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in the level of  $p < .001$ . Also, the result of confirming the size of effect through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was that the effect of stress upon the adjustment to units was higher than the effect of unit's measure of getting rid of assault. Namely, unit's measure of getting rid of assault has a positive effect upon a conscripted policemen unit's adaptation to unit, but it showed that an auxiliary police officer unit's adaptation to unit had the bigger individual stress factor than that of unit's measure of getting rid of assault. From this, authorities should recognize that an auxiliary police officer's stress is a cause to determine their adaptation to units, and prepare its alternative.

**Key words** : Auxiliary Officers, Military Life Adjustment, Stress,  
Preventive Measures, SEM